노 동 정 책 연 구
2006. 제6권 제4호 pp. 1~29
ⓒ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연 구 논 문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분배 결정요인

성 지 미*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7차년도 자료의 맞벌이부부 874쌍을 이용하여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분배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연립방적식(FIM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인의 시간당 임금은 시장노동시간에는 음의 영향력, 근로소득은 비시장노동시간에는 양의 영향력, 가구총소득은 여가시간에 양의 영향력을 보였다. 남편의 여가시간은 여성의 시장노동시간에는 음의 영향력을 보였고, 여가시간과 비시장노동시간에는 양의 영향력을 보였다.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은 여성의 시장노동시간과 비시장노동시간에는 양의 영향력, 여가시간에는 음의 영향력을 보였다. 자녀의 연령 구성에 따른 존재 여부는 시장노동시간과 비시장노동시간을 대체하고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한 인식은 여가시간과 비시장노동시간을 대체하는 효과를 보였다.

핵심용어 : 맞벌이 여성 시간 분배, 시간의 대체효과, 남편의 여가시간,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

논문접수일 : 2006년 8월 30일, 심사의뢰일 : 9월 8일, 심사완료일 : 10월 2일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조교수(jsung13@kut.ac.kr).

I. 서 론

우리나라 여성 취업률은 2006년 5월 현재 51.1%로 증가하였지만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연구들은 자녀 출산 및 양육을 기혼여성 노동공급의 장애요인으로 분석하였고, 정부의 정책은 여성에 대한 차별 개선과 복지후생제도의 시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정부의 정책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위해 남편의 공동 육아부담을 고려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기혼여성 노동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설정을 가족을 단위로 하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가정생산이론에서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을 부부간의 대체관계에 의해 설명한다. 즉 기존의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에 적용하여 여성 본인의 임금과 남편의 임금이 기혼여성의 시장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다. 또한 여성의 노동공급시간 이외의 시간인 여가시간과 비시장노동시간, 그리고 남편의 시장노동시간, 여가시간 및 비시장노동시간과의 대체관계를 설명한다.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진 국가에서는 시간 자료를 활용하여 부부간의 노동공급시간과 함께 여가시간 및 비시장노동을 분석하여 보다 포괄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여가는 노동과 대체되는 것이지만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포함하기 때문에 노동공급량이 감소하는 경우 주목받게 된다. 우리나라도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근로자 본인의 여가시간 및 여가의 활동 내용, 그리고 배우자의 시간 분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가란 최종소비재(consumption commodity)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시간과 재화를 대체로 정의하는데 실증분석에서는 보다 복잡한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여가시간을 총 근로시간의 나머지로 정의하는 경우 인적자본에 투자한 교육시간이나 수면도 여가시간에 포함된다. 여가시간을 효용을 제공하는 활동이라 정의하는 경우 TV시청 및 골프 등과 같이 탄력성이 낮은 활동을 상당히 많이 포함시키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Aguiar and Hurst(2006)는 노동시간이 아닌 시간인 여가를 4가지로 정

의하여 실증분석에서 이용하였다. 첫 번째 정의에서는 사회화에 소비한 시간, 자원봉사, 애완동물 돌보기, 정원 가꾸기, 놀이식 자녀보육을 포함하였고, 두 번째 정의에서는 첫 번째 정의에 수면, 식사, 개인관리를 추가하였고, 세 번째 정의에서는 두 번째 정의에 기본적·교육적인 활동이 포함되는 자녀보육을 추가하였으며, 네 번째 정의에서는 시장노동과 비시장노동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였다.

맞벌이부부의 시간 분배에 대한 분석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의 특성 및 현황을 본인 및 남편의 비시장노동 및 여가시간과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는 여성 노동공급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 본인의 노동시간과 여가 및 비시장노동시간 사이에는 대체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맞벌이부부의 시간 분배에 본인과 배우자의 임금은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부인의 노동공급은 남편의 노동공급, 여가시간 및 비시장노동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맞벌이 여성의 시간 사용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분배가 본인의 임금, 근로소득 및 가구총소득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혼여성의 경우 본인의 인적자원변수 외에 자녀의 연령 및 존재 여부가 기혼여성의 시간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 취업여성의 시장노동참가와 비시장노동시간 그리고 여가시간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Ⅱ. 선행연구

Becker(1965)는 노동공급의 결정을 시간 분배로 설명하면서 시간을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으로 구분하였다. 여성의 노동공급과 시간 분배에 보다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에서는 시장노동 이외의 시간을 여가시간과 가정생산시간으로 구분하였다(Mincer, 1962; Gronau, 1977).

시간 분배를 개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명하는 경우와 부부, 특히 기혼여성의 시간 분배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근로자 개인의 시간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임금변화에 따른 노동시간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영향력에 초점을 둔다. 부부간의 시간 분배에서는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맞벌이인 부인의 경우 미취업여성과는 달리 시장노동시간, 즉 근로시간이 포함된다. 시간 분배를 부부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남편 또는 부인 개인의 시간 분배에 더하여 부부간 시간의 대체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개인별 시간에서 시장노동시간과 가사노동을 하는 비시장노동시간의 대체, 시장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대체, 비시장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의 대체가 고려된다. 이러한 대체관계는 본인의 임금뿐 아니라 배우자 소득과 연계되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료의 제한으로 연구가 제한되었지만 외국에서는 여성 노동공급의 증가에 따라 부부간의 시간 분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정생산 모형을 적용하는 연구들은 여성 임금의 증가로 가정생산재의 가격이 낮아졌고 이로 인해 여성의 노동공급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하였다(Greenwood, Seshadri & Yorokuglu, 2005). 시간 사용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들은 최근과 과거 두 시점을 비교하면서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증가에 따라 남성의 시장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여가시간과 비시장노동시간은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비시장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여가시간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Fogel, 1999; Juster & Stafford, 1991).

맞벌이부부의 시간 분배에 관한 연구는 본인의 임금과 배우자 임금이 시간 분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설명하였다. 전통적인 역할모델은 부부가 분업을 하여 부인은 비시장노동으로 그리고 남편은 시장노동으로 양분화된 역할을 담당하도록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선택의 배경을 남편이 부인에 비해 시장노동에 대한 가격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Hersch and Stratton(1994)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비시장노동시간은 배우자의 상대적인 임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부인의 임금이 남편의 임금에 비해 증가한다면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은 증가하고 부인의 비시장노동시간은 감소한다고 하였다.

Bryant(1990)는 비근로소득의 증가는 시장노동시간과 비시장노동시간의 대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비근로소득의 증가는 시장노동시간을 감소시키지만 비시장노동시간을 감소시키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비근로소득의 증가는 취업 부인과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에는 영향이 없고 미취업 부인의 비노동시간은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Kiefer(1977)는 맞벌이부부의 경우 비근로소득이 10% 상승하면 시장노동시간은 0.8% 줄어든다고 하였다. Owen(1971)은 1929～1960년 자료를 이용하여 비근로소득의 탄력성이 -0.37～-0.57이라고 하였다. Gronau(1977)는 비근로소득이 연간 1,000달러 증가할 때 미취업 여성의 비시장노동시간은 연간 44시간 감소하였음을 분석하였다.

시장노동시간과 비시장노동시간의 대체는 임금 증가로 설명된다. 임금의 상승은 시장노동의 생산성 향상을 의미하며, 이는 상대적으로 비시장노동에 비해 더 높은 생산성을 의미하게 됨으로 전체 시간에는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시장노동과 비시장노동 간에 대체관계가 형성된다. Bryant(1990)는 임금상승으로 비시장노동은 줄고 시장노동이 증가하는 것을 생산대체효과(production substitution effect)로 설명, 늘어난 소득으로 재화의 소비를 늘리는 것을 소비대체효과(consumption substitution)라고 하였다. Aguita and Hurst(2006)는 여가시간에 초점을 두고 시간분배를 분석하였는데 미국의 자료에서는 지난 40년간 여성의 여가시간은 시장노동시간과 함께 증가하였음을 밝혔다. 남성의 경우 시장노동시간(market time)은 줄고 비시장노동시간(가정생산)은 증가한 반면, 여성의 비시장노동시간은 시장노동시간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였다. 1965～2003년 기간에 남성의 여가시간은 주당 6～8시간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시장노동시간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고, 여성의 여가시간은 주당 48시간 증가하였는데 이는 비시장노동시간의 감소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여가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는 부인의 노동공급이 부인의 시간 분배와 남편의 시간 분배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거나 영향력의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간 분배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는 일면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할 때 여성 노동공급의 변화 시점을 정확하게 분석에 고려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는 본 연구에서도 현재 취업중인 여

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시간 분배의 영향력을 설명하면서 방향성을 현실과 일치되게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부인 시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으로 부부간의 시간 분배를 설명하면 부인의 시장노동시간이 증가하면 부인은 비시장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도 어느 정도 줄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인의 시장노동시간이 증가하면 남편은 시장노동시간을 줄이고 비시장노동시간을 증가하여 부인의 비시장노동을 대체할 것이다. 남편의 여가시간은 비시장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이지만 여가시간의 증감에 대한 부분은 선행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편의 시간이 부인의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남편과 부인 각자가 시장노동시간의 증감에 대응하여 비시장노동시간과 여가시간 중에서 시간을 어떻게 대체하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편 시간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력으로 부부간의 시간 분배를 설명하면 남편의 여가시간이 증가하면 남편의 여가에 대한 가치가 커졌다는 의미이며 이는 일면 임금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부인의 시장노동시간은 감소하고 비시장노동시간은 증가할 것이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면 부인은 시장노동시간을 증가하고 비시장노동시간을 줄일 것이다.

한편 소득의 영향력을 예상해 보면, 부인의 임금이 증가하면 부인의 시장노동시간은 대체효과에 의해 증가할 것이고 소득효과에 의해 감소할 것이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우세성에 의해 영향력의 방향성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남편의 시간이 부인의 시장노동시간, 비시장노동시간 그리고 여가시간의 결정요인으로 분석되는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인의 시간 분배를 설명하고자 하여 부인의 시간을 종속변수로 하였다. 따라서 남편의 시간이 부인의 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고자 하였고, 실증분석에서 가장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는 점을 가설로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부부간의 시간 분배)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은 부인의 시장노동시간과는 정의 관계, 비시장노동시간과는 부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남편의 여가시간은 부인의 시장노동시간과는 부의 관계, 비시장노동시간과는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다. 부인은 시장노동시간의 변화에 따라 비시장노동시간과 함

께 여가시간도 조정할 것으로 가정하여 부인의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시장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력과 동일한 방향일 것이다.

가설 2 (본인의 소득) 부인의 임금이 증가하면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지배적이어서 부인의 시장노동시간은 증가할 것이다. 역할 분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임금으로 인하여 부인에게 전담되었던 비시장노동은 어느 정도 남편에게로 이전되어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은 증가하고 부인의 비시장노동시간은 감소할 것이다. 부인의 여가시간은 본인의 임금 증가에 의하여는 대체효과에 의해 감소하고 소득효과에 의해서는 증가할 것이다. 본인의 임금과 가구의 소득을 함께 고려할 경우 소득효과로 증가할 것이다.

가설 3 (어린 자녀) 어린 자녀가 존재하면 부인의 시장노동시간은 감소하고 비시장노동시간은 증가할 것이다.

Ⅲ. 자료 및 표본과 시간 분배 특성

1. 연구자료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7차년도 본 자료와 근로시간과 여가에 관한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부부의 시간사용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시간 분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맞벌이부부의 시간 분배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맞벌이가 아닌 혼자 버는 부부의 시간 분배도 함께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이 경우 맞벌이인 경우 시장노동에의 참여와 함께 일정한 연령층이 표본으로 선정될 것이므로 맞벌이가 아닌 경우에도 연령을 일정하게 통제하기 위해 표본을 16세에서 64세로 한정하였다. 또한 맞벌이가구와 1인취업 가구의 남편과 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가구만을 포함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포함된 맞벌이부부는 총 1,262쌍, 1인취업 부부는 총 1,728쌍으로 총 2,990쌍이 이용되었다. 회귀분석에서는 맞벌이 부인의 시간을 종속변수로 하고 남편의 시

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관계를 파악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874쌍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시간에 대한 정의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는 시간 조사를 위해 항목은 11개로 구분하였고, 시간 사용의 차이를 고려하여 평일, 토요일, 일요일로 구분하였다. 11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유지(수면, 식사, 세면 등)
(2) 주된 취업활동(취업자의 근로활동, 출 · 퇴근시간 등 일과 관련된 활동 전반의 활동을 포함)
(3) 부업(주된 일 이외의 추가적인 소득활동)
(4) 구직활동(이력서 작성, 취업알선기관 방문, 취업과 관련된 인터넷 검색, 면접 등)
(5) 가사활동(식사 준비, 세탁, 청소, 시장보기, 은행 및 관공서 일보기, 가족 보살피기 등)
(6) 학업 및 자기계발 활동
(7) 교재활동(가족 · 친척과의 전화, 모임 등)
(8) 여가활동(신문/잡지/TV/비디오/인터넷 등의 이용, 영화/공연/전시회 관람, 운동 등)
(9) 종교활동(개인적 종교활동, 종교/집회/모임 참가 등)
(10) 참여 및 봉사활동(일일급식, 교통지도, 자원봉사, 민방위 · 예비군, 반상회, 지역활동 등)
(11) 그 외 기타

본 연구에서는 시장노동시간, 비시장노동시간, 그리고 여가시간으로 시간을 구분하였다.

가. 시장노동시간

본 연구에서는 정의한 시장노동시간은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에 대한 연구에서 정의하는 노동시간으로 정의하였고 취업활동(2)시간과 부업(3)시간을 포함하였다.

나. 여가시간

여가시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guiar & Hurst(2006)가 하였듯이 여가시간을 4가지로 정의하였는데 가장 좁은 의미의 여가(정의 4)에는 항목 8의 여가활동만을 포함되었다. 여가정의 3에서는 정의 4에 더하여 교제활동(7), 종교활동(9)을 포함하였다. 여가정의 2에는 정의 3에 더하여 학업 및 자기계발(6), 참여 및 봉사활동(10), 기타(11)를 포함하였다. 여가정의 1에는 정의 2에 더하여 개인유지(1)를 포함하였다. 따라서 정의 4는 순수한 여가시간만을 포함하였고 정의 3에서는 생산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은 활동만을 포함하다. 정의 2에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시장에서는 거래되지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생산이라 할 수 있는 참여 및 봉사활동을 포함하였다. 정의 1에는 개인유지까지 포함하여 시장노동시간이 아닌 다른 모든 시간을 포함하였다. 일반적인 시간 분배의 특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4가지 정의를 모두 사용하였고 결정요인의 분석에서는 여가 정의 1에 해당하는 변수를 사용하였다.

다. 비시장노동시간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비시장노동시간은 문항 5의 가사활동시간이다. 가사노동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육아를 제외한 가사노동시간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노동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서는 육아시간을 분리하여 측정하지 않고 가사활동시간에 포함시켜 측정하였다. Becker는 가정생산이라는 용어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시장노동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는 되지 않지만 생산적인 활동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비시장노동시간은 육아를 포함

한 가사노동시간이며 이는 가정생산이라고 정의하는 경우에 포함되는 시간과 동일하다고 하겠다.

3. 시간 분배의 일반적인 특성

<표 1>에는 맞벌이 가구와 혼자 버는 가구의 남편과 부인의 주당 시간 사용의 평균값이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다. 첫째, 시장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맞벌이 남편의 시장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 남편과 부인 모두의 시장노동시간이 일인취업 남편의 시장노동시간에 비해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맞벌이 남편의 시장노동시간은 주당 약 64시간으로 맞벌이 부인의 56시간에 비해 길고 1인취업 가구 남편의 시장노동시간 49시간에 비교하여 평균 약 15시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맞벌이 가구 남편과 부인의 시장노동시간이 1인취업 가구 남편의 시장노동에 비해서도 긴 것은 맞벌이의 경우 부인의 시장노동 참여로 인해 남편의 시장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선행연구의 제시가 다른 점이라 하겠다.

둘째, 비시장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맞벌이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은 맞벌이 부인의 비시장노동시간에 비해 적을 뿐 아니라 1인취업 남편에 비해서도 적은 것이 특징적인 점이다. 맞벌이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4.6시간으로 이는 맞벌이 부인의 21.4시간과 비교할 때 1/5 정도에 불과하며 1인취업 남편의 5.6시간에 비교하여도 짧은 시간으로 부인의 시장노동시간과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 간에 대체관계가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여가시간을 살펴보면 맞벌이의 경우 남편의 여가시간이 부인의 시간에 비해 많고 1인취업의 경우에는 부인의 여가시간이 남편의 여가시간에 비해 많다. 맞벌이의 경우 남편과 부인 모두 1인취업 가구 남편과 부인에 비해 여가시간은 적은 편이다. 그러나 차이의 정도에는 남편과 부인 사이에 차이가 있다. 맞벌이 남편은 1인취업 남편에 비해 여가시간이 5.0~12.3시간 더 적은 반면 맞벌이 부인은 1인취업 부인에 비해 여가시간이 13.7~30.2시간 더 길어 맞벌이의 경우 남편에 비해 부인의 여가시간이 일인취업에 비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에는 남편의 학력별 남편의 주당 사용한 시간이 항목별로 제시되어

<표 1> 맞벌이 가구와 혼자 버는 가구의 시간 분배

	전 체		맞벌이		1인취업	
	남편	부인	남편	부인	남편	부인
시장노동시간	55.5	27.2	63.9	56.4	49.5	5.9
비시장노동	5.2	33.0	4.6	21.4	5.6	41.4
여가시간 1	106.5	107.6	99.4	90.1	111.7	120.3
여가시간 2	47.0	47.0	40.9	31.8	51.5	58.1
여가시간 3	38.6	40.1	34.7	28.0	41.4	49.0
여가시간 4	28.0	28.1	25.1	20.2	30.1	33.9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7차년도(2004년도).
표본 : 남편과 부인이 모두 16~64세인 부부가구.
맞벌이부부 1,262쌍, 1인취업 부부 1,728쌍, 2,990쌍의 부부.

있고, <표 3>에는 부인의 학력별 부인의 주당 사용한 시간이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다.

첫째, 맞벌이 남편의 시간 사용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졸자가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특징적인 면을 보인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맞벌이 남편의 시장노동시간은 짧고 비시장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맞벌이 부인의 시간 사용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에 따라 뚜렷한 유형을 보이지는 않는다. 시장노동시간의 경우 초대졸에서 가장 짧고 4년제 대학 이상에서 다음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나며 고졸 미만과 고졸의 경우 초대졸 또는 4년제 대졸자에 비해 적게는 6.8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비시장노동의 경우 시장노동과 달리 초대졸에서 가장 길고 다음으로 4년제 대졸자에서 길게 나타난다. 또한 초대졸 또는 4년제 대졸자의 비시장노동시간은 고졸 미만 또는 고졸자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가시간의 경우 4년제 대졸자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맞벌이 남편과 맞벌이 부인을 비교하면 시장노동시간은 남편과 부인에서 모두 고졸 미만과 고졸에 비해 초대졸과 4년제 대졸자에서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비시장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표 2> 남편의 학력별 남편의 시간 분배

	맞벌이					1인취업				
	전체	고졸 미만	고졸	초대졸	4년제 대학 이상	전체	고졸 미만	고졸	초대졸	4년제 대학 이상
시장노동시간	63.9	66.6	66.3	62.7	57.4	49.5	43.1	52.2	51.2	49.7
비시장노동	4.6	3.4	4.2	4.7	6.5	5.6	6.8	5.1	5.1	5.6
여가시간 1	99.4	97.9	97.3	100.5	104.0	111.7	116.9	109.4	109.9	111.9
여가시간 2	40.9	39.0	39.2	41.3	45.5	51.5	55.4	49.4	50.1	52.3
여가시간 3	34.7	34.4	34.0	34.3	36.2	41.4	46.0	40.5	39.9	39.8
여가시간 4	25.1	25.3	24.6	24.5	26.0	30.1	34.4	29.4	29.0	28.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7차년도(2004년도).
표본 : 남편과 부인이 모두 16~64세인 부부가구.
맞벌이부부 1,262쌍, 1인취업 부부 1,728쌍, 2,990쌍의 부부.

〈표 3〉 부인의 학력별 부인의 시간 분배

	맞벌이					1인취업				
	전체	고졸 미만	고졸	초대졸	4년제 대학 이상	전체	고졸 미만	고졸	초대졸	4년제 대학 이상
시장노동시간	56.4	61.4	56.3	49.1	49.5	5.9	10.1	4.7	3.4	2.9
비시장노동	21.4	19.9	21.7	24.1	22.2	41.4	36.7	41.6	48.8	44.4
여가시간 1	90.1	86.6	89.8	94.7	96.3	120.3	120.8	121.4	115.2	120.5
여가시간 2	31.8	29.0	31.6	35.6	36.3	58.1	59.0	59.2	52.3	57.7
여가시간 3	28.0	26.5	28.3	29.8	29.5	49.0	51.2	49.8	44.1	46.1
여가시간 4	20.2	19.6	20.1	20.6	21.7	33.9	36.2	33.9	30.8	31.8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7차년도(2004년도).
표본 : 남편과 부인이 모두 16~64세인 부부가구.
맞벌이부부 1,262쌍, 1인취업 부부 1,728쌍, 2,990쌍의 부부.

넷째, 맞벌이와 1인취업을 비교하면 남편의 경우 4년제 대졸자는 고졸과 초급대졸자에 비해 시장노동시간은 길고 비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더 짧다.

<표 4>에는 남편의 고용상태별 남편의 주당 사용한 시간이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고, <표 5>에는 부인의 고용상태별 부인의 주당 사용한 시간이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다.

첫째, 맞벌이 남편의 시간 사용을 고용상태별로 살펴보면 임근근로자는 자영업 종사자에 비해 시장노동시간은 더 짧고 여가시간은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근로자의 시장노동시간은 60.7시간으로 고용주 또는 자영자에 비해 6.5~8.9시간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여가시간은 고용주 또는 자영자에 비해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비시장노동시간의 경우 18시간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에 비해서는 적지만 고용주 또는 자영자에 비해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주 또는 자영자에 비해서는 부인과 비시장노동을 보다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맞벌이 부인의 고용상태별 시간사용의 경향은 맞벌이 남편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임근근로자는 자영업자에 비해 시장노동시간은 더 짧고 여가시간은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맞벌이 남편의 경우와 다른 점은 맞벌이 부인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자영업에 종사하는 무급가족종사자에 비해 비시장노동시간이 더 많다는 점이다.

〈표 4〉 남편의 고용상태별 남편의 시간 분배

	맞벌이					1인취업					
	전체	임금근로	자영업종사자			전체	임금근로	자영업종사자			미취업
			고용주	자영자	무급			고용주	자영자	무급	
시장노동	63.9	60.7	69.6	67.2	62.6	49.5	60.5	63.4	66.5	62.5	0.5
비시장노동	4.6	5.3	3.5	3.5	8.4	5.6	4.5	3.0	3.6	2.0	11.2
여가시간 1	99.4	101.7	95.0	97.1	96.8	111.7	102.8	101.6	97.8	103.5	150.8
여가시간 2	40.9	42.6	38.5	38.8	37.9	51.5	43.8	42.7	39.0	37.0	85.8
여가시간 3	34.7	35.7	32.5	33.8	33.7	41.4	36.1	36.5	33.1	37.0	64.1
여가시간 4	25.1	25.9	22.5	24.8	25.3	30.1	26.4	25.6	24.5	26.5	46.5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7차년도(2004년도).
표본 : 남편과 부인이 모두 16~64세인 부부가구.
맞벌이부부 1,262쌍, 1인취업 부부 1,728쌍, 2,990쌍의 부부.

〈표 5〉 부인의 고용상태별 부인의 시간 분배

	맞벌이					1인취업					
	전체	임금근로	자영업종사자			전체	임금근로	자영업종사자			미취업
			고용주	자영자	무급			고용주	자영자	무급	
시장노동	56.4	53.1	64.4	61.5	60.2	5.9	59.9	67.8	70.4	63.0	0.4
비시장노동	21.4	22.5	17.9	19.3	20.4	41.4	21.1	13.5	19.6	21.0	43.5
여가시간 1	90.1	92.4	85.7	86.3	87.3	120.3	86.9	86.7	78.0	84.0	123.8
여가시간 2	31.8	33.1	30.1	28.7	30.3	58.1	28.5	28.8	23.4	21.0	61.1
여가시간 3	28.0	29.0	25.7	25.6	27.2	49.0	26.1	25.1	20.1	21.0	51.4
여가시간 4	20.2	20.7	18.0	18.8	20.0	33.9	20.1	19.6	13.8	21.0	35.4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7차년도(2004년도).
표본 : 남편과 부인이 모두 16~64세인 부부가구.
맞벌이부부 1,262쌍, 1인취업 부부 1,728쌍, 2,990쌍의 부부.

셋째, 맞벌이 남편과 맞벌이 부인을 비교하면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조자 모두에서 남편은 부인에 비해 시장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더 길고 비시장노동시간은 더 짧다는 점이다.

넷째, 맞벌이와 1인취업을 비교하면 시간에서 차이가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부인의 경우 맞벌이 부인과 1인취업 부인을 비교할 때 비시장노동시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 주목할 만하다. 단지, 여성이 고용주이고 1인취업인 경우 비시장노동시간은 13.5시간으로 고용주이고 맞벌이인 부인에 비해 4.4시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이 1인취업 고용주일 경우 경제적인 상태 또는 일에 대한 몰입의 정도, 그리고 전문성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에는 자녀 유무 및 연령에 따라 맞벌이와 1인취업 가구의 남편 및 부인의 주당 사용한 시간이 항목별로 제시되어 있다.

첫째, 맞벌이 남편의 경우 시장노동시간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비시장노동시간은 가장 많은 8.4시간이다. 이는 맞벌이 남편의 평균 비시장노동시간 4.6시간에 비해 3.8시간이나 많은 것으로 남편의 육아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은 자녀의 연령이 증가하면

〈표 6〉 자녀 유무 및 연령에 따른 부부의 시간 분배

		맞벌이						1인취업					
		전체	자녀 있음	2세 미만	2~6 미만	6~12 미만	12~18 미만	전체	자녀 있음	2세 미만	2~6 미만	6~12 미만	12~18 미만
남편	시장노동	63.9	63.1	61.1	58.7	65.0	65.3	49.5	54.3	57.3	56.5	53.9	52.7
	비시장노동	4.6	5.1	8.4	7.3	4.5	3.9	5.6	5.6	7.6	6.3	4.7	4.6
	여가시간1	99.4	99.5	97.1	101.5	98.5	98.8	111.7	106.6	101.9	104.0	108.0	109.1
	여가시간2	40.9	41.0	39.1	42.0	40.4	40.8	51.5	47.0	43.6	44.0	48.3	49.6
	여가시간3	34.7	34.2	30.7	34.0	33.9	34.5	41.4	37.8	35.6	36.3	38.3	39.0
	여가시간4	25.1	24.7	23.7	24.6	23.9	24.8	30.1	27.6	27.3	26.7	27.4	28.1
부인	시장노동	56.4	54.2	48.2	49.5	52.6	57.1	5.9	3.9	1.9	2.0	4.4	6.2
	비시장노동	21.4	23.2	28.8	24.6	23.7	22.1	41.4	46.3	60.5	53.1	43.1	38.4
	여가시간1	90.1	90.4	91.0	93.9	91.6	88.3	120.3	117.4	105.3	112.7	120.3	123.1
	여가시간2	31.8	32.4	30.8	34.5	33.9	31.3	58.1	54.9	43.2	49.4	58.1	61.7
	여가시간3	28.0	28.0	26.7	29.5	29.4	27.4	49.0	46.4	38.3	42.4	48.2	51.5
	여가시간4	20.2	19.8	19.6	20.8	20.6	19.5	33.9	32.1	28.6	29.8	33.2	33.9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7차년도(2004년도).
표본 : 남편과 부인이 모두 16~64세인 부부가구.
맞벌이부부 1,262쌍, 1인취업 부부 1,728쌍, 2,990쌍의 부부.

서 감소하고 있다.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비시장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맞벌이 부인의 경우 시장노동시간과 비시장노동시간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일정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시장노동시간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적은 48.2시간이고 12~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57.1시간이며 자녀의 연령 증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증가하고 있다. 맞벌이 부인의 비시장노동시간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많은 28.8시간이며, 자녀의 연령 증가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감소하여 12~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22.1시간이다. 여가시간의 경우 자녀가 2~6세 미만인 경우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부인의 경우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와 2~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시장노동시간의 차이가 1시간이 되지 않아 줄어든 비시장노동시간이 시장노동시간으로 대체되기보다는 여가시간으로 대체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패널 형식의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상태상의 변화와 자녀의 연령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 시간 분배의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를 통해 이러한 결과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맞벌이 남편과 맞벌이 부인을 비교하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비시장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여가시간은 2~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가장 많다는 점이 공통적인 점이다. 이는 비시장노동과 여가시간을 어느 정도 공유되고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

넷째, 맞벌이와 1인취업을 비교하면 남편의 경우 1인취업의 경우에도 만 2세 미만 또는 2~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비시장노동시간이 많다는 점이다. 맞벌이 남편에 비해선 적기는 하지만 자녀가 어린 경우 남편의 비시장노동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음을 보이고 있다.

Ⅳ. 실증분석

1. 실증분석 모형과 변수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인의 시간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인 시간은 시장노동시간, 비시장노동시간(비시장노동시간) 및 여가시간으로 구분되었고 여가시간은 정의 1에 해당하는 여가시간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3가지 활동에 사용한 시간을 합하면 총 시간이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간의 단위는 주당 시간이므로 시간을 모두 합하면 168시간이 된다.

본 연구 분석에서는 두 가지 다른 분석방법을 선택하였는데 우선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두 번째로 연립방정식체계를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로 분석하였다. FIML을 사용한 이유는 3가지 활동에 분배되는 시간

은 서로 연결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독립적인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추정치가 편의되고(biased) 일치성이 없다(inconsistent)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부표 1 참조).

즉 연립방정식체계는

$$\begin{aligned} y_1 &= a_{12}y_2 + a_{13}y_3 + X_1\beta_1 + \varepsilon_1 \\ y_2 &= a_{21}y_1 + a_{23}y_3 + X_2\beta_2 + \varepsilon_2 \\ y_3 &= a_{32}y_2 + a_{33}y_3 + X_3\beta_3 + \varepsilon_3 \end{aligned} \quad (1)$$

으로 표현(제약식은 $y_1 + y_2 + y_3 = T$)되는데, 이를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면

$$AY=BX+E \quad (2)$$

이 되고, 이를 정리하면

$$Y=A-BX+A-E=CX+E' \quad (3)$$

가 된다. 이 경우 X가 full column rank를 가지면, 즉 각 식에 적어도 하나의 변별변수(identification variable)가 있으면 추정이 가능해진다.

단순회귀분석과 연립방정식체계(FIML)의 경우 동일한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2개의 방법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에는 3가지 활동시간에 공통적인 변수와 3가지 활동 각각에서 변별변수 역할을 하는 변수가 포함되었다. 변별변수로는 노동시간의 경우 본인의 시간당 임금, 여가시간의 경우 가구 총소득, 가사시간의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이다.

노동시간, 여가시간, 가사시간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독립변수는 남편의 여가시간(정의 1),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 연령과 연령제곱, 자영업종사 여부,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해 '조금 어렵다'와 '매우 어렵다'에 응답한 가변수이다. 노동시간과 가사시간에는 자녀 연령 및 존재 여부가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만2세 미만 자녀의 존재 여부, 2~6세 미만 자녀의 존재 여부, 6~12세 미만 자녀의 존재 여부, 12~18세 미만 자녀의 존재 여부가 포함되었다. 설명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 결정요인 변수의 정의 및 기초통계

변 수	정 의	Mean (Std)
부인의 여가시간(정의 1)	여가정의 1에 의한 주당 부인의 시간	90.1 (16.5)
부인의 시장노동시간	부인의 주당 시장노동시간	56.1 (16.8)
부인의 비시장노동시간	부인의 주당 비시장노동시간	21.3 (9.4)
남편의 여가시간(정의 1)	여가정의 1에 의한 남편의 주당 시간	100.7 (14.9)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	남편의 주당 비시장노동시간	5.2 (6.6)
부인의 근로소득(로그값)	부인의 근로소득(연속변수)	130.8 (115.2)
가구총소득(로그값)	가구의 총소득(근로, 금융, 부동산, 사회보험, 이전 및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	3948 2509
부인의 시간당임금(로그값)	(원/시간)	5881 9703
부인의 학력	부인의 학력(연속변수)	11.9 (3.1)
부인의 연령	부인의 연령(연속변수)	40.4 (8.0
부인의 연령제곱	연령/10	17.0 (6.5)
자영업종사여부	부인의 자영업종사 여부	157 (18.0)
현재 경제상태: 조금 어려운 편	5점 척도 중 '조금 어려운편' 응답(가변수)	284 (32.5)
현재 경제상태: 매우 어려움	5점 척도 중 '매우 어려움' 응답(가변수)	132 (15.1)
2세 미만 자녀 있음	2세 미만 자녀 있음(가변수)	37 (4.2)
2~6세 미만 자녀 있음	2~6세 미만 자녀 있음(가변수)	134 (15.3)
6~12세 미만 자녀 있음	6~12세 미만 자녀 있음(가변수)	239 (27.3)
12~18세 미만 자녀 있음	12~18세 미만 자녀 있음(가변수)	276 (31.6)

주 : 1) 로그값은 회귀식에서 사용됨.
2) 가변수의 경우 평균과 SD 대신 빈도와 비율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7차년도(2004년도).
표본 : 남편과 부인이 모두 16세~64세인 맞벌이 부부 874쌍.

2. 결정요인 분석 결과

<표 8>에는 FIML모형의 추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맞벌이 여성의 시장노동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본인의 시간당 임금, 2세 미만 자녀 존재, 2~6세 미만 자녀 존재, 6~12세 미만 자녀 존재, 12~18세 미만 자녀 존재, 남편의 여가시간과 비시장노동시간, 학력 및 자영업종사 여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자영업종사 여부와 남편의 비시장노동은 정(+)의 효과를 가지고 다른 변수들은 음(-)의 효과를 보인다. 맞벌이 여성의 비시장노동시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본인의 근로소득, 2세 미만 자녀 존재, 2~6세 미만 자녀 존재, 6~12세 미만 자녀 존재, 12~18세 미만 자녀 존재, 남편의 여가시간과 비시장노동시간, 자영업종사 여부 및 현재 경제상태이다. 자영업종사 여부는 비시장노동시간에 부(-)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변수들은 양(+)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가시간의 경우 가구총소득, 남편의 여가시간 및 비시장노동시간, 학력, 연령, 자영업종사 여부 및 현재 경제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총소득,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 학력은 양(+)의 효과를 보이고,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 연령과 현재 경제상태는 부(-)의 효과를 보인다.

가. 시간변수의 영향력

부인의 시장노동시간, 여가시간, 비시장노동시간을 종속변수로 하는 3개의 모형에 남편의 여가시간(정의 1)과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이 독립변수로 각각 포함되었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부인의 시장노동시간은 남편의 시장노동시간과 대체관계를 보여 남편의 여가시간 및 비시장노동시간과 정의 관계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남편의 여가시간은 부인의 시장노동시간에 부의 효과를 보여 남편의 여가시간이 늘어나면 맞벌이 부인의 시장노동시간은 줄어들고 비시장노동시간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설에서 설정하였던 영향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남편의 여가시간은 부인의 비시장노동시간 및 부인의 여가시간과는 정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난다. 남편의 여가시간이 증가하면 부인의 여가시

간도 증가하는데 여가시간을 부부 또는 가족이 함께 하여 부부가 상대방의 시간 분배를 인식하면서 여가시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부인이 시장노동시간을 여가시간과 비시장노동시간 양쪽에 대체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은 부인의 시장노동시간에는 양의 영향력을 보여 가설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는 반면, 부인의 비시장노동시간에 양의 영향력을 보여 가설 및 외국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이 증가하면 맞벌이 부인의 시장노동시간은 증가하고 비시장노동시간은 남편의 비시장노동으로 일부 대체되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분석 결과 부인의 시장노동시간은 증가하였다. 한편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이 증가하면 부인의 여가시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이 부인의 시장노동시간, 여가시간, 비시장노동시간에 미치는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여성은 시장노동이 증가하지만 비시장노동도 증가하여 직장과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일하고 대신 여가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소득관련 변수

본인의 시간당 임금이 많을수록 시장노동시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효과보다 소득효과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연구가설 및 외국 연구 결과와는 상반되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임금추정식 연구에서 얻은 결과와는 유사한 것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현상이다. 가구총소득이 많을수록 맞벌이 여성의 여가시간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가는 경제적인 여유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인의 근로소득은 비시장노동시간과 정의 관계를 보여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맞벌이 부인의 비시장노동시간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근로소득이 많다는 것은 근로시간이 긴 경우와 시간당 임금이 많은 경우의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쪽의 효과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설명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일반적인 노동시장 특성상 임금근로자의 경우 시간당 임금이 높은 경우 안정적인 직업으로 상대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파트타임이나 시간제 근로자보다 근로시

간이 긴 편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영업종사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나는데 기혼여성의 경우 자영업에 종사하는 비율도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어떤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나 여성의 근로시간이 많아도 기사노동시간도 길다는 결과는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 개인특성 및 자녀변수의 영향력

자녀의 연령 구성에 따른 존재 여부는 시장노동시간과 비시장노동시간에 반대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 가변수 4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2세 미만, 2~6세 미만, 6~12세 미만, 12~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부인의 시장노동시간은 줄어들고 비시장노동시간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계수값을 보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시장노동시간이나 비시장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6~12세 초등학교 연령대인 경우 2~6세인 미취학에 비해 영향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시장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여가시간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고학력 기혼여성 노동공급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과 연령제곱의 경우 시장노동시간과 비시장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이 같고 여가시간에서 반대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연령이 여가시간에 미치는 음의 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에 종사하는 맞벌이 여성의 시장노동시간은 길고 여가시간과 비시장노동시간은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경제상태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대답한 문항에 대해 '조금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 시장노동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없었지만 여가시간은 줄어들고 비시장노동시간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일면 시장으로 대체하던 비시장노동을 경제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할 때 본인이 시간을 더 분배하여 함으로써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맞벌이 부인의 시간 분배 : 연립식 FIML(모형 1)

	시장노동시간	여가시간	비시장노동시간
상 수	68.376 (13.823)***	87.231 (11.979)***	9.883 (8.799)
본인의 시간당 임금	-0.416 (0.092)***		
가구총소득		0.063 (0.034)*	
본인의 근로소득			0.397 (0.089)***
2세 미만 자녀 존재	-4.671 (1.571)***		4.778 (1.586)***
2~6세 미만 자녀 존재	-2.612 (0.952)***		2.706 (0.962)***
6~12세 미만 자녀 존재	-2.743 (0.736)***		2.758 (0.743)***
12~18세 미만 자녀 존재	-1.804 (0.760)**		1.786 (0.768)**
남편의 여가시간 1	-0.187 (0.036)***	0.155 (0.032)***	0.036 (0.021)*
남편의 비시장노동 시간	0.141 (0.082)*	-0.282 (0.074)***	0.133 (0.048)***
학력	-0.912 (0.206)***	0.945 (0.186)***	-0.014 (0.122)
연령	0.712 (0.646)	-0.937 (0.551)*	0.209 (0.420)
연령제곱	-0.685 (0.782)	1.004 (0.667)	-0.294 (0.509)
자영업종사 여부	8.093 (1.381)***	-4.457 (1.252)***	-3.631 (0.813)***
현재 경제상태 : 조금 어려운 편	0.494 (1.194)	-1.761 (1.082)*	1.248 (0.703)*
현재 경제상태 : 매우 어려움	0.333 (1.558)	-2.791 (1.412)**	2.478 (0.919)***

주 : ( )안은 표본오차.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7차년도(2004년도).
표본 : 남편과 부인이 모두 16세~64세인 맞벌이 부부 874쌍.

<표 9>에는 지역변수가 추가된 FIML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 기혼여성의 노동수요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성의 비시장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여성의 비시장노동을 대체하는 것은 크게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과 가족 및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과 보육시설의 차이, 부모로부터 육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에서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측면을 보다 상세히 구체화하여 분석하기에는 제한이 있지만 지역변수를 이용하여 통제하는 과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맞벌이 부인의 시간분배 : 연립식 FIML(모형 2)

	시장노동시간	여가시간	비시장노동시간
상 수	67.523 (13.751) ***	88.215 (11.823) ***	9.870 (8.705)
본인의 시간당 임금	-0.376 (0.093) ***		
가구총소득		0.059 (0.034) *	
본인의 근로소득			0.347 (0.089) ***
2세 미만 자녀 존재	-4.840 (1.557) ***		4.955 (1.570) ***
2~6세 미만 자녀 존재	-2.658 (0.947) ***		2.746 (0.955) ***
6~12세 미만 자녀 존재	-2.905 (0.731) ***		2.923 (0.737) ***
12~18세 미만 자녀 존재	-1.869 (0.755) **		1.837 (0.761) **
남편의 여가시간1	-0.174 (0.036) ***	0.131 (0.032) ***	0.047 (0.021) **
남편의 비시장노동 시간	0.147 (0.083) *	-0.286 (0.074) ***	0.130 (0.049) ***
학력	-0.820 (0.206) ***	0.892 (0.185) ***	-0.057 (0.122)
연령	0.662 (0.643)	-0.825 (0.544)	0.157 (0.416)
연령제곱	-0.612 (0.779)	0.856 (0.659)	-0.231 (0.504)
자영업종사 여부	8.064 (1.377) ***	-4.583 (1.239) ***	-3.479 (0.805) ***
현재 경제상태 : 조금 어려운 편	0.924 (1.203)	-1.855 (1.082) *	0.891 (0.704)
현재 경제상태 : 매우 어려움	1.062 (1.563)	-3.491 (1.406) **	2.439 (0.916) ***
거주지 : 서울	-3.944 (1.371) ***	1.982 (1.233)	1.995 (0.802) **
거주지 : 부산	-0.788 (1.813)	1.410 (1.631)	-0.937 (1.060)
거주지 : 대구	-0.803 (2.262)	0.417 (2.036)	0.391 (1.323)
거주지 : 대전	-5.123 (2.970) *	5.111 (2.671) *	0.052 (1.738)
거주지 : 인천	1.846 (1.964)	-6.276 (1.768) ***	4.369 (1.148) ***
거주지 : 광주	-3.684 (3.449)	6.844 (3.104) **	-3.108 (2.017)
거주지 : 울산	2.852 (3.064)	-2.373 (2.753)	-0.549 (1.796)

주 : ( )안은 표본오차.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7차년도(2004년도).
표본 : 남편과 부인이 모두 16세~64세인 맞벌이 부부 874쌍.

<표 9>의 결과는 <표 8>의 결과와 비교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와 방향에서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지역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 중 연령과 현재 경제상태가 조금 어려운 편이라는 변수에서 차이가 나타나 각각 여가시간과 비시장노동시간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광역도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맞벌이 여성에 비해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시장노동시간이 짧고 비시장노동시간은 길며, 대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시장노동시간은 짧고 여가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난다. 인천에 거주하는 여성은 여가시간이 짧고 비시장노동시간이 길며, 광주 지역의 경우 여가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구구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 제7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부부간의 시간 분배를 분석하였다. 시간 분배에 대한 기초분석에서는 부부가 모두 16세 이상 64세인 표본으로 한정하여 맞벌이부부 1,262쌍과 1인취업 부부 1,728쌍을 비교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맞벌이부부 874쌍을 대상으로 부인의 시장노동시간, 비시장노동시간, 여가시간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중요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분석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점은 맞벌이 남편과 1인취업 남편을 비교할 때 시장노동시간은 더 많고 비시장노동시간은 더 짧다는 점이다. 외국의 실증분석에서는 부인의 시장노동참가로 남편의 시장노동시간은 대체관계에 의해 감소하고 비시장노동시간은 길어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유는 무엇일까? 부인의 경우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비시장노동시간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비시장노동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맞벌이 남편의 경우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 다른 집단에 비해 비시장노동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부인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가 다른 집단에 비해 비시장노동시간이 더 적은 편은 아니다. 한편, 만 2세 미만, 만 2~6세 미만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녀양육에 남편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립방적식체계(FIML)를 이용하여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분배에 영향을 미치

는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여가시간은 부인의 시장노동시간에 음의 영향력을 보이고, 부인의 비시장노동시간 및 부인의 여가시간에는 양의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편의 여가시간이 늘어나면 맞벌이 부인의 시장노동시간은 줄어들고 비시장노동시간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설에서 설정하였던 영향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남편의 여가시간이 부인의 여가시간에 양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은 연구 결과 남편의 여가시간은 부인의 시장노동시간에 부의 효과를 보여 준다. 이는 가설에서 설정한 것과 같이 부부가 여가를 함께 즐기기 위해 상대방의 시간 분배를 인식하면서 여가시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은 부인의 시장노동시간에는 양의 영향력을 보여 가설과 일치되는 결과를 보이는 반면 부인의 비시장노동시간에는 양의 영향력을 보여 가설 및 외국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은 부인의 여가시간도 감소시키는 영향력을 보인다.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이 부인의 여가시간과는 음의 관계, 부인의 비시장노동시간과는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에 대한 이유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현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취업여성이 시장노동시간을 늘리더라도 여가시간은 증가하지 않고 비시장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중 부담을 짐작하게 한다.

셋째, 본인의 임금 또는 소득은 시장노동시간에는 부의 영향력을 갖고, 비시장노동시간에는 정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총소득은 부인의 여가시간에 정의 영향력을 보여 여가시간과 경제적 여유와는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의 임금이 시장노동시간에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가설과는 일치하지 않았지만 국내의 임금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와는 일관성 있는 결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본인의 근로소득이 증가할 때 비시장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결과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넷째, 자녀가 있는 경우 맞벌이 부인의 시장노동시간은 줄어들고 비시장노동시간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어린자녀의 존재는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장애요인임을 입증하고 있다.

다섯째, 현재 경제상태가 '조금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 여가시간과 비시장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맞벌이 여성의 시간 분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여성의 시장노동시간이 증가하여 남편이 비시장노동, 즉 집안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가시간의 경우 남편과 여성이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음도 나타나지만 남편의 여가시간이 증가하면 여성의 비시장노동시간이 증가함은 일면 여성이 시장노동에 참여하여도 여전히 비시장노동의 책임자임을 보이고 있다. 부인의 비시장노동시간에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이 미치는 양의 영향력과 본인의 근로소득이 양의 영향력을 보이는 두 개의 결과는 연구가설 및 외국 연구의 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우리나라 취업 기혼여성 노동공급의 특이함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여성의 경우 시장노동에 참여하여도 비시장노동으로 대체되는 것에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고, 일면 고학력여성의 취업이 저조하고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거나 임금이 낮은 직종에 기혼여성의 취업이 증가한 노동시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경우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적고 가족 내에서 부가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시장노동에 참여하여도 남편과 비시장노동의 대체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앞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시간 분배에서 부부간의 시간 분배 결정이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각 개인의 시간 분배에서는 어떤 시간에 우선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참고문헌

Aguita, Mark & Hurst, Erik. *Measure Trends in Leisure: The Allocation of Time Over Five Decades*. NBER Working Paper 12082 (2006).

Becker, Gary.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1965) pp.493-517.

Bryant, W. Keith.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Fogel, Rober, W. "Catching up with the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89 (1). (March 1999) pp.1-21.

Greenwood, Jeremy. Seshadri, Annath, & Yorokulu, Mehmet. "Earnings of Liber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72 (1). (2005) pp.109-133.

Gronau, Reuben.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 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 (6). (1977) pp.1099-1123.

Hersch, J. & Stratton, Leslie, S. "Housework, Wages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Time for Employed Spouses". *American Economic Review* 84 (2). (May 1994).

Juster, F. Thomas & Stafford, Frank, P. "The Allocatopn of Time: Empirical Findings, Behavorial Models, and Problems of Measuremen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9 (2). (June 1991) pp.471-522.

Kiefer, N. M. "A Bayesian Analysis of Commodity Demand and Labor Supply".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18 (1). (1977) pp.209-218.

Mincer, Jabob.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A Study of Labor Supply". in *Aspects of Labor Economics*. Princeton: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1962).

Owen, J. D. "The Demand for Leisu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9 (1). (1971) pp.56-76.

〈부표 1〉 맞벌이 부인의 시간 분배 : 단순회귀분석

	시장노동시간	여가시간	비시장노동시간
상 수	58.666 (14.827)***	86.432 (12.142)***	19.998 (8.728)**
본인의 시간당 임금	-6.147 (0.905)***		
가구총소득		0.360 (0.565)	
본인의 근로소득			-3.364 (0.511)***
2세 미만 자녀존재	-1.622 (2.681)		5.301 (1.567)***
2~6세 미만 자녀존재	-3.880 (1.625)**		2.368 (0.950)**
6~12세 미만 자녀존재	-4.645 (1.259)***		1.891 (0.741)**
12~18세 미만 자녀존재	-1.597 (1.300)		1.467 (0.760)*
남편의 여가시간1	-0.167 (0.035)***	0.155 (0.032)***	0.036 (0.021)*
남편의 비시장노동시간	0.205 (0.082)**	-0.284 (0.075)***	0.184 (0.048)***
학력	-0.300 (0.223)	0.928 (0.190)***	0.305 (0.127)*
연령	0.955 (0.706)	-1.000 (0.567)*	0.379 (0.413)
연령제곱	-0.983 (0.855)	1.072 (0.683)	-0.477 (0.500)
자영업종사여부	9.141 (1.369)***	-4.497 (1.261)***	-2.565 (0.808)***
현재 경제상태 : 조금 어려운편	-0.685 (1.193)	-1.643 (1.112)	0.423 (0.697)
현재 경제상태 : 매우 어려움	-0.802 (1.548)	-2.640 (1.448)*	1.694 (0.905)*
조정된 R^2	0.201	0.142	0.143
F값	11.980 ***	10.030***	8.280***
표본	874	874	874

주 : ( )안은 표본오차.

***,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유의함을 의미.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제7차년도(2004년도).

표본 : 남편과 부인이 모두 16~64세인 맞벌이 부부 874쌍.

abstract

Time Allocation of Married Working Women

Jaimie Sung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ime allocation of the married working women using systems equations(FIML). The sample of the empirical study was the 874 married working women among the both working households of the 7th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Women's wage showed a negative effect on market work hours. Women's earnings showed a positive effect on household work hours and total household income showed a positive effect on women's leisure time. Leisure time of the husband had a negative effect on women's market work hours while positive effect on women's leisure time and household work hours. The presence of children had a negative effect on women's market work hours while positive effect on household work hours. This implies that the presence of children has a substitute effect on market and household work.

Keywords : time allocation, married woman's labor work, leisure time